

한차례만 아동학대해도 어린이집 폐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학대교사·원장 영구 추방

CCTV설치 의무화 등 고강도 대책 추진...실효성 논란도

정부 근절대책 발표

정부가 인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어린이집에서 단 한 차례라도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되면 폐쇄조치하는가 하면, 학대 교사와 원장도 어린이집 분야에서 영구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등 고강도 대책도 포함됐지만 시행 여부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18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과 CCTV 설치 의무화 및 평가인증제도 강화 등 3가지 핵심으로 하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는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현행 폐쇄 처분 요건을 고친다는 것으로, 현재는 아동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고 뇌사 등 손해를 보거나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한 상태다.

“아동학대 발생 때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지만 지난 2010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때 내놓은 아동학대 근절 대책과 다르지 않고 당시 제기됐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 보완책도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를 막고자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하면 관련 동영상 제공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실효성을 담보할 지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높다.

학부모들 입장에서선 언제나 자녀들의 활동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점과 광주

지역의 경우 1258곳 중 21.3%에 불과한 268곳만 설치된 점 등을 들어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서명운동’이 일어나는 등 반응도 뜨겁다. 반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던 인천 어린이집에도 CCTV가 설치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CCTV 설치가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도 많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도 부모가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평가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지표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기존 서류 중심의 평가 제도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형편이다.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 등 인터넷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을 원칙적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전환하고 신규 보육교사 배출을 제한하는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현장 실습교육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혹이나 부족한 보육교사 확충 문제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많다. 돈을 받고 어린이집을 사고 파는가 하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교사들이 적정 보육 인원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을 돌보게 하는 등 ‘수익성’을 중시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여·33)씨가 지난 17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 센트럴공원에서 한 여자가 어린이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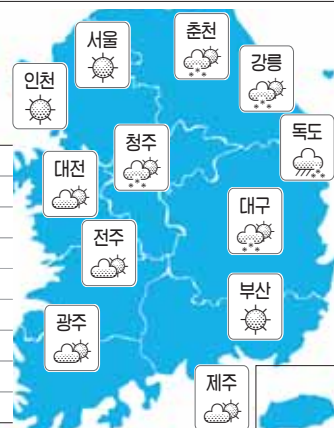
해돋이 07:39, 해질 17:47, 달뜨기 05:58, 달지기 16:35

반가운 낮 햇살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겠다.

지역별 날씨 (°C)

| | | | |
|----|------|-----|------|
| 광주 | 0/7 | 보성 | 0/8 |
| 목포 | 1/6 | 순천 | 0/8 |
| 여수 | 1/8 | 영광 | 1/6 |
| 나주 | -2/7 | 진도 | 2/7 |
| 완도 | 2/7 | 전주 | -1/6 |
| 구례 | -3/7 | 군산 | 0/5 |
| 강진 | -1/7 | 남원 | -3/6 |
| 해남 | 0/7 | 홍산도 | 5/6 |
| 장성 | -1/6 | | |



바다 날씨

| |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 남해 | 서~북서 | 1.0~2.5 | 북서~북 | 0.5~1.5 |
| 남부 | 남해 | 서~북서 | 2.0~3.0 | 북서~북 | 1.0~2.5 |
| 남해 | 서부 | 서~북서 | 0.5~1.5 | 북서~북 | 0.5~1.0 |
| 서부 | 남해(동) | 서~북서 | 1.0~2.5 | 북서~북 | 1.0~2.0 |
| 남해(서) | 서~북서 | 1.5~3.0 | 북서~북 | 1.0~2.5 | |

생활지수

| | |
|----|----|
| 동파 | 25 |
| 운동 | 0 |
| 빨래 | 20 |

주간 날씨

| 20(화) | 21(수) | 22(목) | 23(금) | 24(토) | 25(일) | 26(월) |
|-------|-------|-------|-------|-------|-------|-------|
| ☀ | ☁ | ☁ | ☀ | ☀ | ☁ | ☁ |
| -3/8 | 1/7 | 1/6 | -1/7 | -1/8 | 1/8 | 3/8 |

광주·전남 비 소식... 大寒 추위는 없을 듯

광주와 전남은 대한(大寒·20일)을 전후로 비 소식이 예보된 가운데 이번 주는 동장군이 한풀 꺾여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 광주·전남 지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 한때 전남동부내륙지역에 눈이 오는 곳 있으나 이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점차 맑아 지겠다”고 18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5도~8도 분포로 평년보다 2~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예상 적설량(강우량)은 1~3cm(5

mm 내외). 대한인 20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6도~9도로 평년에 비해 아침 기온은 1도가량 더 떨어지겠지만 낮부터 다시 평년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오는 21일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날인 22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으며 당분간 평년보다 2~3도가량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5·18폭도’, 35년만에 오명 벗었다

소총 탈취 화순 50대... 법원 “군사반란 맞선 정당 행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총기 등을 탈취한 혐의로 체포돼 옥고를 치른 50대가 35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폭도라는 오명을 벗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기 등을 탈취했다더라도, 이는 군사반란에 맞서 환경정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도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1980년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모(52)씨는 17살이던 그해 5월 21일 화순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용달차를 타고 광주로 향하던 중 마주진 군용트럭에 올라타 ‘김대중 석방하라’, ‘계엄 해제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했다. 이들은 같은 날 화순경찰서 동면지서를 찾아 시위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켈빈 소총 1정과 탄약 2발을 탈취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그해 7월께 체포됐고 얼마 후 열린 재판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3개월여 뒤인 10월 30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김씨는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용)는 16일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행기자 golee@연합뉴스

이순신대교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경찰청 올해 40여곳 추가

호남고속도로에 이어 이순신대교 등 전남지역에 추가로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전망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이순신대교 양방향에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줄 것을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흔들림 현상이 관측된 이순신대교의 도로 포장 파손 방지와 수명 연장,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경찰은 여수 산단 입구~이순신대교~대교 종점(8km 구간)의 시점과 종점에 양방향으로 2대씩 총 8대의 카메라를 설치, 구간 과속 단속(제한속도 시속 60km)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간 단속이 시행되면, 카메라 설치 지점뿐 아니라 시점과 종점의 카메라를 이용해 시간과 거리를 계산, 평균 속도를 산출할 수 있게 돼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 2013년 12월 31일 전남지역에

서는 최초로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하행선) 곡성 나들목~석곡 나들목 구간 10km에서 구간 과속 단속(제한속도 시속 100km)에 들어갔다. 이 구간에는 모두 4대의 카메라(시점 2대·종점 2대)가 운용 중이다. 전남경찰은 또 오는 3월 중 도내 경찰서별로 과속·다기능(과속 및 신호)·구간 단속 카메라 수요를 파악한 뒤 우선순위를 정해 경찰청에 건의키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 과속 단속 카메라 398대를 구입, 노후 설비를 대체하는 한편, 구간 단속 카메라도 40여 군데에 설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636 걸고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기본의 숫자번호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모집 대상: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30명

수강 기간: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입학상담문의 GOChina www.gochina.co.kr 233-9582 (총) 구오달리